

# 베이비부머 가계의 경제구조 및 경제적 만족도 분석

A Study of the Economic Structure of Baby Boomer Households  
and the Determinants of Economic Satisfaction in Korea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가정학과  
조교수 서지원\*

Dept. of Home Economics, Korea National Open Univ.  
Assistant Professor Seo, Jiwon

## 〈목 차〉

- |            |            |
|------------|------------|
| I. 서론      | IV. 연구결과   |
| II. 선행연구고찰 | V. 요약 및 결론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 〈Abstract〉

Recently, Korean baby boomers, which make up approximately 15% of the total population, have begun to retire. Their economic well being is one of Korea's most important social issu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the economic structure of baby boomers' households with that of the prior generation, as well as to analyze the determinants of economic satisfaction from the perspective of "work" and "child educational burden." In addition, group comparisons were made regarding economic resource allocation between baby boomers and the prior generation and within baby boomers of different work and child educational burden statuses. Data from the 2nd wave of the 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eing (KLoSA), including baby boomers and the generation prior to the baby boomers, were used. Th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the baby boomers had a different economic structure, level of economic satisfaction, and economic resource allocation when compared to the prior generation. The economic structure of baby boomers in terms of income, expenditure, savings and assets, debts, and trust in policies significantly differed from their counterparts. Second, the determinants of economic satisfaction and the propensity of resource allocation were different depending on whether they worked or had a child educational burden, respectively. Based on these empirical results, policy implications for the future economic well being of baby boomers were provided.

\* 주저자, 교신저자: jiwonseo@knou.ac.kr

Key Words : 베이비부머(baby boomers), 가계경제구조(households' economic structure), 경제적 만족도(economic satisfaction), 자원배분 성향(propensity of resource allocation), 일하는 베이비부머(working baby boomers), 교육비 부담이 있는 베이비부머(baby boomers with child educational burden)

## I. 서론

한국의 베이비부머(baby boomer)는 일반적으로 1955년부터 1963년에 출생한 인구집단으로 2010년 현재 약 712 만 명에 이르며 전체 인구의 14.6%를 차지한다(통계청, 2010. 5. 10). 최근 한국사회에서는 이들 거대한 규모의 인구집단이 지난 2010년부터 생애사적 사건인 은퇴의 시작을 맞이함에 따라 이들 세대의 삶의 다양한 영역에 걸친 사회전반적 관심이 커지고 있으며 정책적 논의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2012년 기준으로 만 49~57세에 해당하는 이들 베이비부머는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를 모두 부양하고자 한다는 의미에서 흔히 ‘샌드위치 세대’로 불리며, 이외에도 이들의 전통적 가치관을 벗어난 측면을 강조하는 ‘뉴시니어’, ‘루비족’ 등의 다양한 별칭도 존재한다. 최근에는 평균수명의 연장이 가져다 준 ‘100세 시대’를 맞이하여 노후설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다양한 보험·투자 상품 시장에서 베이비부머 세대가 집중적인 광고의 소구대상이 되고 있기도 하다.

베이비부머 개인과 이들의 가정생활을 둘러싼 다양한 사회적 관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슈는 이들의 노후준비가 얼마나 충실히 이루어져 만족할 만한 노후를 보장할 수 있을 것인지에 관련된 문제일 것이다. 실제로 베이비부머에게 있어 경제적 문제는 건강과 더불어 성공적 노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제기되고 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 이와 관련하여 우선 향후 10년

이내에 순차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는 ‘비자발적 은퇴’일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있다. 베이비부머 가계는 이처럼 준비되지 않은 은퇴로 인해 생애주기 단계상 여전히 지니고 있을 자녀교육 부담을 감당하는데 어려움을 경험할 뿐 아니라 교육비 부담이 베이비부머 세대 스스로를 위한 충분한 노후 설계를 준비하는 데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실제로 우리나라 근로자의 평균 은퇴연령은 대기업의 경우 57세, 민간기업의 경우 이보다 더 낮은 53세 수준에 불과하다(통계청, 2005). 남성과 여성의 평균수명이 각각 77.2세, 84.1세 수준(통계청, 2011)이므로 베이비부머 세대는 대체로 은퇴 이후 최소한 20여 년의 삶을 지속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은퇴연령이 낮아질수록 은퇴 이후 개별가계의 소비가 가지는 현재 가치를 증가시키게 되므로 은퇴자산의 적정성이 감소한다는 점에서(여윤경, 김진호, 2007), 이들 세대의 은퇴와 관련된 노후준비에 대한 관심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베이비부머 세대의 경제적 자원관리는 개별가계의 경제적 복지 뿐 아니라 우리사회 전반에 미칠 장기적 영향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우선 베이비부머 세대가 노동시장에서 이탈하게 될 경우 국가경제의 성장동력 유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도 중요하게 지적된다. 더불어, 이들이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은퇴를 맞이한 이후 가계의 소득보장이 어려워지면서 보유한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을 처분할

경우 나타날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관심도 이슈가 되고 있다(삼성경제연구소, 2010).

향후 사회적 영향력이 클 것으로 기대되는 베이비부머의 노후준비와 관련하여 정부는 대규모 인구집단인 베이비부머 세대의 고용, 소득보장, 건강관리, 노후설계 등 다양한 영역에 걸친 정책 과제를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다. 최근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1-2015)’에서는 지난해 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06-2010)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았던 베이비부머를 핵심 정책대상으로 선정하여 고령화 정책분야에서 별도의 장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주관 하에 ‘베이비붐 세대 미래구상 포럼’과 ‘100세 시대 대비 저출산고령사회 포럼’ 등 활발한 학술적 논의의 장도 마련되고 있다. 이처럼 한국의 베이비부머는 ‘저출산·고령화’와 더불어 여러 정책영역에서 핵심적인 정책대상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베이비부머 세대에 대한 관심이 이처럼 크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부머 세대 가계의 경제구조 현황을 중심으로 이들과 이들 가족이 경험하는 삶의 질과 경제적 문제가 베이비부머 이전의 세대와 어떻게 차이가 있으며, 이들 베이비부머 세대 내부에서의 차이를 가져오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경험적으로 규명하는 연구는 아직 드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최근의 자료를 사용하여 베이비부머 세대와 베이비부머 이전세대의 가계경제 현황을 전반적으로 비교하며, ‘일’과 ‘자녀교육’이라는 베이비부머 가계의 두 가지 경제적 자원 관련이슈를 기준으로 하여 베이비부머 세대 내부의 가계경제구조의 차이와 경제적 만족도 결정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베이비부머 세대의 경제적 자원 배분의향을 통해 이들을 위한 경제적 자원사용의 전략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II. 선행연구 고찰

### 1. 베이비부머의 개념과 인구사회학적 특성

베이비부머는 다른 시기에 비해 출산율이 높은 해에 태어난 사람들을 지칭하는 인구통계학적 용어로서 주로 전후세대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미국의 경우 제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46~1964년, 일본은 1947년~1952년, 우리나라는 한국전쟁이 종료된 이후인 1955년에서 가족계획운동이 본격적으로 전개되기 이전인 1963년까지 출생한 인구집단으로 보고 있다. 인구구조의 측면에서 보면, 베이비부머 세대는 역동적인 변화 속에서 살아온 것으로 보인다(통계청, 2010. 5. 10). 한국의 베이비부머는 연령별 인구구조가 ‘피라미드’ 형태인 1960년대 초반 이후 출생하였으나, 이후 심화되는 저출산 현상과 베이비부머 세대 자신의 인구규모로 인해 점차 ‘항아리’ 형태로 변화하는 사회를 살아왔다.

이러한 인구구조의 변화 속에서 이들이 성장 과정에서 경험한 가족관계의 특성은 결국 전통적 가치와 현대적 가치를 모두 포함한 양면적인 가족가치관의 형성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들 베이비부머는 샌드위치 세대로서의 특징과 관련하여 부모에 대한 봉양을 책임지는 마지막 세대이면서 자녀로부터의 봉양을 기대할 수 없는 첫 세대가 될 확률이 높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정성호, 2006). 즉, 베이비부머 세대는 1960년대 대가족 내에서 성장하면서 1970년대 핵가족으로 변화하는 시기를 모두 경험한 연유로 인해 부모부양에 대한 의무감을 가지면서도 자녀에 대한 부양을 기대하지 않는 상반된 가치관을 지니게 된 것으로 이해된다.

베이비부머 세대는 이전세대에 비해 교육수준이 높은 노인 세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의 노인 세대와 교육수준을 비교하여 보면, 상대

적으로 큰 차이가 있으며, 그에 따라 사회참여 욕구 또한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의 노인인구는 30% 이상이 무학인 수준이나(대한민국정부, 2011), 베이비부머 세대는 중졸 이하인 경우가 31.2%, 고등학교 졸업 44.0%, 전문대졸 이상 24.8%로 상대적으로 높은 교육수준을 보였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

베이비부머에 대한 사회조사 분석결과(통계청, 2010. 4. 12)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베이비부머는 자녀의 대학교육비를 어느 정도까지는 지원해야 하며(99.1%), 자녀의 결혼비용 역시 지원해야 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90.0%). 또한 베이비부머 가구주는 소득수준에 대비하여 느끼는 상대적인 교육비 부담이 30대 연령층의 가구주에 비해 오히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른 세대에 비해 교육비 지출이 10%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지나친 자녀교육에 대한 책임감은 실제로 교육비 지출을 위한 부채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으며, 결국 중요한 생애 재무목표인 노후설계를 포기하도록 하는 문제도 야기할 수 있다. 이러한 자녀교육비 부담은 결국 베이비부머 세대가 희망하는 은퇴시기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동패널조사의 중고령자 부가조사를 통해 근로자의 평균 은퇴시기를 분석한 결과 남성이 58세, 여성이 55세인데 반해, ‘희망’하는 은퇴시기는 남성이 64세, 여성이 62세로 조사되었다. 즉, 실제 은퇴시기와 희망하는 은퇴시기는 대략 6~11년이나 차이가 나며, 이는 향후 베이비부머 세대의 경우에도 경제적 소득보장 정책이 일자리 창출 등 고용정책과의 긴밀한 연계 하에 추진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한편,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베이비부머 세대는 동질적인 생애사적 경험을 공유함에도, 이들을 다양성을 지니는 이질적 집단으로 보아야 한다는 문제제기도 있다. 우선 베이비부머 세대의 준비되지 않은 비자발적 조기은퇴가 중요한 이슈임에는 분명하나, 여전히 이들 베이비부머

세대의 고용률은 75%를 상회하는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기도 하다(삼성경제연구소, 2010;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 대부분 기업의 평균 정년을 고려할 때, 2010년에 이미 일부 베이비부머 세대가 정년퇴임 연령에 도달하여 대규모의 은퇴가 시작되었다고는 하나, 여전히 베이비부머 세대가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일을 유지하고 있는 비율은 높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베이비부머 세대의 자녀는 학동기 자녀부터 기혼자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는데(한경혜 외, 2010), 이는 베이비부머 세대 내부에서도 다양한 교육비 수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처럼 베이비부머 가계는 생애주기 단계에 따라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일에 종사하는 고용상태와 공교육비나 사교육비를 지출해야 하는 자녀교육 부담에 차이가 있으며, 정책적으로도 비동질적인 요구를 지닐 가능성을 상당히 시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요인에 주목하여 최근 고령화 정책의 논의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가계경제구조와 경제적 만족도를 결정하는 인구사회학적 요인을 이해하고자 한다.

## 2. 베이비부머의 가계경제구조 현황

경제학의 생애주기모델(life cycle model)에 따르면, 개인이나 가계는 미래에 대한 합리적 전망에 따라 소비와 저축을 포함한 자산 축적에 대해 결정한다(Bryant, 1990). 즉, 생애주기모델은 중장년기에는 부의 축적을 최대화하며, 은퇴 이후 노년기에는 이전에 축적한 부를 조금씩 소비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가설을 전제로 한다. 은퇴를 앞둔 베이비부머 개인이나 가계는 자신의 기대수명, 일할 가능성과 그에 따른 소득수준, 연금정책을 포함한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국가의 제도적 지원수준, 가족원의 욕구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평생에 걸친 소비를 계획하게 되는 것이

다(Easterlin, Schaeffer, & MaCunovich, 1993).

따라서 베이비부머 가계가 어느 생애주기 단계에 속하는지에 따라 가계경제구조의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생애주기는 가계의 주요 재정문제, 예산수립행동, 자산보유행동, 포트폴리오의 구성, 부채 등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정운영·한경미, 2004). 백은영(2009)의 연구에서는 제9차 한국노동패널 연구를 통해 미혼기, 신혼기, 자녀 출산기 및 양육기, 자녀 초등학교기, 자녀 중고등학교기, 자녀 성년기, 자녀 독립 및 은퇴기 등 7단계로 나누어 생애주기를 분석한 결과와 비교하면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베이비부머 세대는 자녀 성년기는 물론 자녀 중고등학교기에 모두 걸쳐 있으며, 이들 가계에서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자녀 중고등학교기에 비해 자녀 성년기에 낮아지긴 하나, 각각 가장 높은 경제적 부담을 주는 지출항목으로 나타났다. 또한 저축 차원에서 보면, 자녀 중고등학교기에 비해 자녀 성년기에는 '자녀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저축이 감소하기는 하나 '자녀 결혼'을 목적으로 하는 저축의 비율이 증가하여 '노후 준비' 목적의 저축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김지경(2010)의 연구에서도 자녀교육비는 베이비부머 가계의 중요한 문제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자녀교육 부담에 대한 한국노동패널자료 분석에서 사교육비 지출이 고등학생 자녀를 둔 가계뿐 아니라 대학생 자녀를 둔 가계에서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우리나라의 81.9%에 이르는 높은 대학진학률과 대학등록금의 수준 등을 고려할 때, 베이비부머의 은퇴 이후에도 자녀교육비가 경제적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하겠다.

베이비부머의 가계경제 현황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대체로 베이비부머 가계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자산규모가 큰 생애주기에 속하나, 총자산에서 부동산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며 위험회피적인 투자를 하고 있고 장기적 노후설계

가 미흡한 점 등 몇 가지 특징적인 구조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베이비부머 가계의 월평균 소득은 약 386만원으로 전체 가계에 비해 1.12배 높은 수준이며, 다른 소득에 비해 사업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36% 정도로 높게 나타났다(한경혜 외, 2010). 가계자산조사(2006)를 통해 베이비부머 세대의 자산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총자산은 3.7억 원 수준이었으며,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0)에서 베이비부머만을 대상으로 한 생활실태 조사에서는 총자산의 규모가 3.3억 원이었으므로 나타났다. 2010년 2월 말 현재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평균자산보유액이 2.7억원 수준임을 고려할 때(통계청, 2010. 12. 30), 베이비부머 가계의 자산보유 수준은 높은 수준이다. 한편, 전체 베이비부머 가계의 절반 이상인 56%가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부채액은 8,300만원 수준이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

소비지출에서는 자녀교육비 및 결혼비용 지출에 대한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투자설계를 하고 있는 비율은 매우 낮았고 안정성을 우선하는 위험회피적 투자성향을 보였다. 금융자산의 경우에도 안전자산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이 원하는 수준의 수익률을 달성하기에는 미흡한 투자전략을 사용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한경혜 외, 2010). 한편, 전체 연령대별 주식보유 현황을 비교하면 베이비부머 세대의 주식운용 비중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거래소, 2009). 이는 안정성을 지향하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투자성향이 상대적으로 다른 세대에 비해 두드러진 특성은 아님을 시사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0)의 조사결과, 베이비부머 가계의 80%가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하여 저축 또는 보험에 가입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이러한 저축 및 보험액은 월평균 약 75만원 수준이었다. 한편, 이러한 결과와 차이가

있는 한경혜 외(2010)의 조사에서는 전체 베이비부머의 절반 정도만이 저축이나 투자를 통해 은퇴 이후를 대비하고 있으며 저축 및 투자액은 월 평균 약 17만원 수준으로 낮게 나타났다.

베이비부머 가계의 총 자산 가운데 부동산 자산의 비중이 79.8%로 압도적이었는데(가계자산조사, 2006), 전체 부동산 보유액 2억 9720만원 중 주택 가격(1억 6,470만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55.4%로 절반 수준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자산에서 부동산 자산의 비중이 82.4%에 이른다는 한경혜 외(2010)의 조사결과와도 유사하다. 삼성경제연구소(2010)의 보고서에서도 베이비부머 세대의 가구 총자산이 전체가구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총자산에서 부동산 자산 비중이 약 76%에 이르고 있어 유동성이 확보되기 어려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의 베이비부머 세대가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노후에 활용 가능한 자산이 상대적으로 적어 은퇴 이후 취약계층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의 근거가 되기도 한다. 특히, 은퇴한 가계가 거주부동산을 활용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경우 은퇴자산의 적정도가 크게 낮아진다(여운경·김진호, 2007)는 점에서 은퇴 이후 가계경제의 만족도를 저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베이비부머 세대가 우리나라 전체 토지의 42% 가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건물을 기준으로 한 부동산의 58%, 전체 주식의 20%를 소유하고 있는 인구집단임을 고려할 때(이철용·윤상하, 2006), 이들 베이비부머 세대가 은퇴 이후 부동산 자산을 처분하고자 할 경우 개별가계뿐 아니라 시장전체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클 것으로 예측되기도 한다.

더불어 노후 생활자금 조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연금제도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도입단계에 있으므로 은퇴 이후 소득대체 수준에 도달하기에는 미흡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한국의 대표적인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은 고령화에 따라

장기적으로 적자와 고갈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연금수급자의 증가로 인한 장기적 재정불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에 있으나(대한민국정부, 2011), 한국의 연금의 소득대체율은 OECD 평균인 68.4%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인 42.1%에 불과한 실정이다. 더구나 평균 정년연령에 은퇴 하더라도 연금 수급이 개시되기까지 5~10년의 공백 기간이 발생하므로 이 역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백은영, 2011; 삼성경제연구소, 2010). 한편, 베이비부머 세대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남성이 80.5%, 여성이 45.2%로 나타났고(김영란, 2011), 베이비부머 세대에 있어 국민연금은 주된 노후준비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에 대한 인지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 따라서 향후 연금제도의 운용은 베이비부머 세대의 경제적 만족도를 증진시키기 위한 중요한 사회적 과제가 될 것이다.

반면, 이와 같은 베이비부머의 은퇴로 인한 시장의 과급력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최소한 단기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측하는 연구결과도 있는데, 삼성경제연구소(2010)는 베이비부머의 은퇴로 인한 노동, 자산, 재정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단기적으로 미미한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고하고 있으며, 이수옥의 연구(2010) 역시 현재 매년 5만호의 주택이 지속적으로 공급될 것을 전제로 하여 베이비부머 세대의 주택수요를 측정한 결과 주택가격과 전세가격은 2013년 대략 2% 정도 하락하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일부 주택 매각이 이루어지더라도 보유세, 실질주택가격, 대출금리 등의 통제요인을 고려하면 부동산시장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이처럼 베이비부머 세대에 대한 경제적 자원관리 문제는 주로 이들 세대의 은퇴가 가져올 사회적 영향과 그로 인한 시장의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 정부는 고령화 정책의 주요부문으로 은퇴 준비를 충분히 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되는 베이비부머 세대에 주목하면서 예방적 대안을 통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 지출을 경감하고자 하며, 시장에서는 이들을 위한 노후대비 금융상품의 개발을 집중적으로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미래에 대한 거시적, 장기적 전망에 비해 현재 베이비부머 가계의 가계경제구조가 다른 세대와 어떠한 차이가 있으며, 개별 가계의 상황에 따라 경제적 만족도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한 미시적인 접근은 미약한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가계경제구조 현황에 초점을 맞추어 베이비부머 이전세대와 비교하고, 베이비부머 세대 내부의 이질적인 경제구조의 측면을 분석하며, 경제적 만족도를 결정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경제적 만족도는 연구의 목적이나 관점에 따라 달리 선택할 수 있는데(강이주 외, 2006), 객관적 재무지표를 이용하여 경제적 복지수준을 측정하는 경우는 동일한 기준으로 모든 가계의 경제적 복지 수준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고 있어 가족생애주기나 가계의 특수한 상황 등 가계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므로(Weicher, 1999), 본 연구에서는 베이비부머 가계의 경제적 복지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파악하기 위하여 상대적이며 주관적 수준의 경제적 만족도 개념을 사용하고자 한다.

### III. 연구방법

#### 1. 연구문제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베이비부머 세대의 가계경제구조(소득, 소비, 저축 및 자산, 부채, 노후정책 신뢰도)는 어떠한가?

1-1 베이비부머 세대의 가계경제구조는 베이비부머 이전세대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1-2 일하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가계경제구조는 일하지 않는 베이비부머 세대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1-3 자녀교육비 부담이 있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가계경제구조는 자녀교육비 부담이 없는 베이비부머 세대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베이비부머 세대의 가계경제구조는 경제적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2-1 베이비부머 세대의 가계경제구조가 경제적 만족도에 미치는 효과는 베이비부머 이전세대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2-2 일하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가계경제구조가 경제적 만족도에 미치는 효과는 일하지 않는 베이비부머 세대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2-3 자녀교육비 부담이 있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가계경제구조가 경제적 만족도에 미치는 효과는 자녀교육비 부담이 없는 베이비부머 세대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베이비부머 세대는 여유자금을 저축투자, 빚 갚음, 상속기부, 여가 이외 소비, 여가관련 소비에 각각 얼마나 배분하고자 하는 의향을 가지는가?

3-1 베이비부머 세대의 여유자금 배분 의향은 베이비부머 이전세대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3-2 일하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여유자금 배분 의향은 일하지 않는 베이비부머 세대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3-3 자녀교육비 부담이 있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여유자금 배분 의향은 자녀교육비 부담이 없는 베이비부머 세대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 2. 자료

본 연구는 2008년 조사된 제2차 고령화연구패널조사(KLoSA: 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eing)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베이비부머 세대(1955~1961년 출생자)’와 ‘베이비부머 이전세대(1955년 이전 출생자)’를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제1차 고령화연구패널조사는 2006년에 제주도를 제외한 전 지역에 걸쳐 당시 만 45세 이상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실시된 바 있으며, 주요 조사항목은 크게 인구, 가족, 건강, 고용, 소득, 자산, 주관적 기대감 및 삶의 만족도 등 7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한국노동연구원, 2009).

이 조사는 제2차 자료에서도 제1차 자료와 마찬가지로 1962~63년에 출생한 인구를 포함하지 않고 있는데, 베이비부머 전체인구의 분석에는 일부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으나, 1955년에서 1961년에 출생한 대부분의 베이비부머 세대를 포함하였으며 대도시뿐 아니라 중소도시와 농어촌 지역을 포괄할 뿐 아니라 비교적 최근인 2009년에 발표된 자료라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 또한, 특히 제2차 고령화연구패널조사는 제1차 자료에 비해 소비지출 관련 변수가 추가되어 보다 다양한 측면에서 가계경제 현황을 설명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제2차 고령화연구패널조사 자료에서 베이비부머 세대의 소득, 소비지출, 저축, 자산, 부채, 국가의 노후보장제도에 대한 신뢰도, 경제적 만족도, 경제적 자원 배분 의향, 사회인구학적 배경변수 등을 통계적 분석에 활용하였다.

## 3. 변수의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 사용된 각 변수 및 집단에 대한 조작적 정의는 다음 <표 1>과 같다. 우선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경제적 만족도는 응답자 자신이 동년배와 비교할 때 느끼는 경제상태에 대한 주

관적 만족도로 측정하였다. 이때, 경제적 만족도는 상대적이며 주관적인 개념을 의미한다. 독립변수는 크게 소득, 소비지출, 저축 및 자산, 부채, 노후정책 기대감, 사회인구학적 변수의 6개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우선, 소득에는 가구총소득, 근로소득 유무가 포함되었다. 둘째, 소비지출을 측정하기 위해 식비, 외식비, 공교육비, 사교육비, 주거비, 보건의료비, 피복비의 7개 변수가 사용되었다. 셋째, 저축 및 자산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저축액, 현금 및 예금 보유(현금예금액), 저축성 예금 보유(저축성 예금액), 주식투자신탁액(주식투자신탁액), 저축성 보험 가입, 가구원 총자산, 자가주택 소유(자가주택 가격), 거주 외 부동산 소유, 부동산 시장 전망수준 등 9개 변수가 포함되었다. 넷째, 부채는 금융기관 부채 유무, 개인적 빌린 돈 여부, 가구 총부채의 3개 변수가 사용되었다. 다섯째, 노후보장제도 신뢰도에는 국민연금제도, 기초노령연금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등의 제도에 대한 신뢰도를 포함하였다. 여섯째, 사회인구학적 배경에는 성별, 연령, 혼인상태, 교육수준, 우울증, 거주지역이 포함되었다. 마지막으로 <연구문제>에서 제시한 ‘베이비부머 세대,’ ‘베이비부머 이전세대,’ ‘일하는 베이비부머,’ ‘일하지 않는 베이비부머,’ ‘교육비부담이 있는 베이비부머,’ ‘교육비부담이 없는 베이비부머’ 등 각 집단의 구체적 정의도 함께 제시하였다.

## 4. 분석방법

본 연구는 IBM SPSS 19.0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평균, 표준편차, 백분율 등의 기술통계를 사용하였다. 가계경제구조 및 경제적 자원배분 의향에 대하여 집단 간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t-test를 실시하였으며, 경제적 만족도에 대한 독립변수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표 1〉 변수 및 집단의 조작적 정의

변수		조작적 정의
경제적 만족도		동년배와 비교한 자신의 경제상황 만족도 (최소 0 ~ 최대 100)
소득	가구총소득	지난 한해 가구 총 소득액(만원)
	근로 및 사업소득 유무	임금노동과 자영 사업체의 운영에 따른 소득의 유무 (1=예, 0=아니오)
	임금소득	임금소득이 있는 경우의 월평균 임금소득(만원)
	자영업소득	자영업소득이 있는 경우의 월평균 자영업소득(만원)
	부업소득	부업소득이 있는 경우의 연평균 부업소득(만원)
소비 지출	총소비지출	지난 한해 식비, 외식비, 공교육비, 사교육비, 주거비, 보건의료비, 피복비 지출액을 합산한 월평균 금액(만원)
	식비	지난 한해 월평균 식비(만원)
	외식비	지난 한해 월평균 외식비(만원)
	공교육비	지난 한해 월평균 공교육비(만원)
	사교육비	지난 한해 월평균 사교육비(만원)
	주거비	지난 한해 월평균 주거비(만원)
	보건의료비	지난 한해 월평균 보건의료비(만원)
피복비	지난 한해 월평균 피복비(만원)	
저축 및 자산	저축	지난 한해 월평균 저축액(만원)
	현금·예금	50만원 이상 보유하고 있는 현금 및 은행예금액(만원)
	현금·예금 보유	50만원 이상의 현금 및 은행예금 유무(1=예, 0=아니오)
	저축성예금	저축성예금액(만원)
	저축성예금 보유	저축성예금 보유 여부(1=예, 0=아니오)
	주식·투자신탁	주식 및 투자신탁의 투자액(만원)
	주식·투자신탁 보유	주식 및 투자신탁 유무(1=예, 0=아니오)
	저축성보험 가입	저축성보험 가입 여부(1=예, 0=아니오)
	가구총자산	가구원의 자산 총액(만원)
	자가주택 가격	주거를 위한 자가소유 주택의 가격(만원)
	자가주택 소유	주거를 위한 자가주택 소유 여부(1=예, 0=아니오)
	거주 외 부동산 소유	거주 이외 목적의 부동산 소유 여부(1=예, 0=아니오)
	부동산 전망	향후 10년간 부동산시장의 전망에 대한 기대수준 (최소 0 ~ 최대 100)
부채	금융기관 부채액	금융기관 부채액(만원)
	금융기관 부채 유무	금융기관 부채의 유무
	개인적 빌린 돈	개인적으로 빌린 돈의 액수(만원)
	개인적 빌린 돈 유무	개인적으로 빌린 돈의 유무
	가구 총부채	가구원의 부채 총액(원)

<표 1> 계속

변수		조작적 정의
노후 정책 신뢰 도	국민연금제도 신뢰도	국민연금제도가 자신의 노후생활 안정에 기여한다고 믿는 수준 (최소 0 ~ 최대 100)
	기초노령연금제도 신뢰도	기초노령연금제도가 자신의 노후생활 안정에 기여한다고 믿는 수준 (최소 0 ~ 최대 100)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신뢰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자신의 노후생활 안정에 기여한다고 믿는 수준 (최소 0 ~ 최대 100)
경제 적 자원 배분 의향	저축·투자 배분액	일천만원의 현금이 주어진 경우 저축 및 투자에 배분하고자 하는 금액(만원)
	빚 상환 배분액	일천만원의 현금이 주어진 경우 빚 상환에 배분하고자 하는 금액(만원)
	상속·기부 배분액	일천만원의 현금이 주어진 경우 자녀에 대한 상속 및 사회적 기부에 배분하 고자 하는 금액(만원)
	여가이외 소비 배분액	일천만원의 현금이 주어진 경우 여가를 제외한 소비지출에 배분하고자 하는 금액(만원)
	여가 소비 배분액	일천만원의 현금이 주어진 경우 여가 소비에 배분하고자 하는 금액(만원)
사회 인구 학적 변수	성별	남성(기준=여성)
	연령	만 연령
	혼인상태	배우자 유무(1=예, 0=아니오)
	교육수준	초졸 및 중졸이하, 고졸, 대졸이상(기준)
	지역	대도시, 중소도시(지역), 읍면
*집단 구분	베이비부머 세대	출생연도가 1961~1955년으로 자료에서 베이비부머에 속하는 인구집단
	베이비부머 이전세대	출생연도가 1955년 이전에 해당하는 인구집단
	일하는 베이비부머	임금근로, 자영업 등 소득이 있는 노동 또는 사업체 운영에 참여하는 베이비 부머 집단
	일하지 않는 베이비부머	소득이 있는 노동 또는 사업체 운영에 참여하지 않는 베이비부머 집단
	교육비 부담이 있는 베이비부머	공교육비 및 사교육비 지출이 있는 베이비부머 집단
	교육비 부담이 없는 베이비부머	공교육비 및 사교육비 지출이 전혀 없는 베이비부머 집단

#### IV. 연구결과

#####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2>와 같다. 먼저 조사대상자 중 남성이 42.5%, 여성이 57.5%를 차지해 여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조사 시점 기준 평균 연령은 만 49.9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가족체계를 살펴보면, 혼인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베이비부머가 89.9%에 이르며, 이혼 및 별거(4.7%), 사별(3.4%), 미혼(2.1%)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평균 자녀 수는 2.03명, 평균 가구원 수는 3.42명 수준으로 나타났다. 세대구성은 2세대가 65.8%로 가장 높고, 1세대(18.6%), 3세대(10.6%), 단독

〈표 2〉 베이비부머 세대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특성	빈도	(%)	평균	(SD)
성별				
남성	850	(42.5%)		
여성	1,150	(57.5%)		
연령			49.94	(2.00)
혼인상태				
혼인 중	1,789	(89.9%)		
이혼 및 별거	92	(4.7%)		
사별	68	(3.4%)		
미혼	42	(2.1%)		
가구원수			3.42	(1.18)
자녀수			2.03	(.92)
세대구성				
단독	61	(3.1%)		
1세대	371	(18.6%)		
2세대	1,316	(65.8%)		
3세대	211	(10.6%)		
기타	41	(2.1%)		
교육수준				
초졸 이하	265	(13.3%)		
중졸	363	(18.2%)		
고졸	1,008	(50.4%)		
대졸 이상	363	(18.2%)		
취업형태				
임금근로	755	(37.8%)		
자영업	515	(25.8%)		
무급가족종사	135	(6.8%)		
일하지 않음	595	(29.8%)		
자가주택 소유				
예	1,540	(77.0%)		
아니오	460	(23.0%)		
지역				
대도시	929	(46.5%)		
중소도시	753	(37.7%)		
읍면	318	(15.9%)		
경제적 만족도			54.00	(21.41)
N	2,000			

(3.1%), 기타(2.1%) 순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을 보면, 고졸인 경우가 가장 많아 50.4%로 절반 수준이었으며, 대졸이상과 중졸이 18.2%로 같은 비율로 나타났고, 초졸 이하인 경우가 13.3%로 가장 낮았다. 취업형태를 보면, 일하는 경우 임금근로에 종사하는 비율(37.8%)이 가장 높았고, 자영업(25.8%), 무급가족종사(6.8%) 순으로 나타났다. 일하지 않는 경우도 29.8%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77.0%가 자가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이들의 거주지역은 대도시(46.5%), 중소도시(37.7%), 읍면부(15.9%)의 분포를 나타냈다. 한편, 경제적 만족도는 100점 가운데 54점에 해당하여 대략 중간수준의 만족감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베이비부머 세대의 가계경제구조

<연구문제 1>과 관련하여 소득, 소비지출, 저축 및 자산, 부채, 노후정책 신뢰도의 5개 영역을 중심으로 하여 베이비부머 세대의 가계경제구조를 이해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베이비부머세대와 베이비부머 이전세대를 비교하고, 베이비부머세대 내에서도 일하는 베이비부머 집단과 일하지 않는 베이비부머 집단, 그리고 교육비 부담이 있는 베이비부머 집단과 교육비 부담이 없는 베이비부머 집단의 가계경제구조를 각각 비교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 1) 베이비부머 세대와 베이비부머 이전세대의 가계경제구조 비교

베이비부머 세대와 그 이전세대의 가계경제구조를 비교하면, 베이비부머 세대는 이전세대에 비해 가구총소득, 임금소득, 자영업소득, 부업 소득의 측면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특히 베이비부머의 가구총소득은 연 3,790만원으로 베이비부머 이전세대의 2,107만원에 비해 약 1.8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소비지출에서는 식비, 외식비, 공교육비, 사교육비, 주거비, 피복비 지출은 베이비부머 세대가 이전세대에 비해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건의료비 지출은 베이비부머 이전세대가 유의하게 높았다. 총 소비지출액은 베이비부머 세대가 월평균 203만원으로 이전세대의 105만원에 비해 약 2배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저축과 자산을 비교하면, 베이비부머 세대가 월평균 저축액이 31.5만원으로 이전 세대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나, 가구 총자산 규모는 베이비부머 세대가 2억 2,360만원으로 베이비부머 이전세대의 2억 1,609만원에 비해 약간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금융자산을 보면 현금예금액, 저축성예금액은 베이비부머 세대가 이전세대보다 높았으나, 주식투자신탁액에는 이들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부동산 자산과 관련하여 자가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주택가격을 비교한 결과 베이비부머 이전세대 집단(1억 7,273만원)이 베이비부머 세대(1억 2,570만원)에 비해 약 1.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부동산 시장 전망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가구 총부채는 2,831만원으로 이전세대의 2,293만원 수준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약 1.2배 수준이었다. 금융기관 대출 및 개인적으로 빌린 돈의 규모를 비교하면 모두 베이비부머 세대가 더 높은 수준을 보였으나, 금융기관 대출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국가의 노후소득 보장과 관련된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국민연금제도, 기초노령연금제도, 장기요양보험제도 측면에서 비교하면, 국민연금제도에 대해서만 베이비부머가 이전세대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신뢰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집단 모두 각각 신뢰도의 절대치만 보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가장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집단 간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

〈표 3〉 가계경제구조의 집단별 비교

		베이비부머 세대	베이비부머 이전 세대	일하는 베이비부머	일하지 않는 베이비부머	교육비 부담이 있는 베이비부머	교육비 부담이 없는 베이비부머
소득 (만원)	가구총소득(년)	3,789.4	2,107.0	3,957.6	3,494.7	4,122.0	3,086.1
		t=22.917***		t=3.409**		t=6.593***	
	임금소득(월)	203.6	143.3	210.7	-	205.6	124.2
		t=9.279***		-		t=7.642***	
자영업소득(월)	228.8	171.9	231.5	-	238.3	172.7	
		t=4.884***		-		t=2.542*	
부업소득(년)	525.1	364.3	519.2	530.7	644.5	255.9	
		t=2.155*		t=-0.080		t=3.260**	
소비 지출 (만원/ 월)	총소비	203.4	105.1	206.0	199.7	242.9	131.2
			t=30.738***		t=1.056		t=23.233***
	식비	49.8	31.8	50.3	49.2	54.2	41.9
			t=22.122***		t=0.801		t=8.672***
	외식비	11.0	4.8	11.3	10.8	12.4	8.6
			t=18.207***		t=0.794		t=6.267***
	공교육비	36.5	5.2	38.7	33.4	56.4	0.0
			t=22.586***		t=1.959		-
	사교육비	17.5	3.1	20.4	13.5	27.1	0.0
			t=17.071***		t=4.351***		-
	주거비	20.0	15.0	20.2	19.8	21.1	18.0
			t=12.999***		t=0.615		t=4.489***
보건의료비	6.6	8.5	6.4	6.7	6.6	6.5	
		t=-4.747***		t=-0.431		t=0.108	
피복비	9.6	5.1	9.7	9.5	10.8	7.3	
		t=12.907***		t=0.305		t=6.052***	
저축 및 자산	저축(만원)	31.5	15.7	43.0	39.5	44.5	36.0
			t=9.595***		t=0.965		t=2.023*
	가구총자산 (만원)	22,360.4	21,608.7	23,102.7	26,885.8	28,074.6	16,651.5
			t=1.000		t=-2.129*		t=6.797***
	현금/예금(만원)	562.7	419.3	638.2	620.4	871.6	509.0
			t=2.434*		t=0.126		t=2.250*
	저축성예금 (만원)	278.1	174.8	368.8	417.1	525.8	250.1
			t=2.357*		t=-0.346		t=2.529*
	주식투자신탁 (만원)	112.5	46.7	183.0	146.4	327.3	30.1
			t=1.518		t=0.273		t=1.990*
자가주택가격 (만원)	12,570.2	17,273.3	13,227.3	14,930.1	15,726.4	10,064.4	
		t=-3.917***		t=-1.905		t=5.964***	
부동산전망	45.2	45.5	45.2	46.1	45.8	45.3	
		t=-0.705		t=-1.150		t=0.405	

(표 3) 계속

		베이비부머 세대	베이비부머 이전 세대	일하는 베이비부머	일하지 않는 베이비부머	교육비 부담이 있는 베이비부머	교육비 부담이 없는 베이비부머
부채	가구총부채 (만원)	2,830.6	2,293.4	2,643.8	3,156.3	3,347.2	1,893.7
		t=2.496*		t=-1.278		t=3.796***	
	금융기관 대출 (만원)	447.6	265.1	519.8	322.1	569.8	193.1
		t=2.574*		t=1.597		t=2.293**	
	개인적 빌린 돈 (만원)	71.4	55.7	69.8	74.0	80.0	45.8
		t=0.725		t=-0.120		t=0.816	
노후 정책 신뢰도	국민연금제도 신뢰도	43.8	40.9	44.6	42.5	44.4	41.5
		t=5.271***		t=2.038*		t=2.345*	
	기초노령연금 제도 신뢰도	42.6	43.6	41.8	44.0	42.6	44.1
		t=-1.626		t=-2.142*		t=-1.151	
신뢰도	장기요양보험 제도 신뢰도	52.2	52.1	51.9	52.6	52.5	52.9
		t=0.102		t=-0.691		t=-0.328	

\*\*\* p < 0.001, \*\* p<0.01, \* p<0.05

지 않았다.

### 2) 일하는 베이비부머와 일하지 않는 베이비부머의 가계경제구조 비교

베이비부머 집단을 일하는 베이비부머와 일하지 않는 베이비부머로 구분하여 각 집단의 가계경제구조를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소득을 보면, 일하는 베이비부머는 월평균 임금소득 및 자영업소득이 각각 211만원, 232만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일하는 베이비부머의 연간 가구총소득은 일하지 않는 베이비부머 세대에 비해 조금 높은 수준인 3,958만원 수준이었으며,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한편, 부업소득은 일하지 않는 베이비부머에 비해 조금 낮은 수준이었으며,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소비지출 수준을 비교하면, 일하는 집단은 사교육비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식비, 외식비, 공교육비, 피복비 지출은 일하는 집단이 약간 높고, 보건의료비는 일하지 않는 집단이 약간 높았으나 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저축 및 자산 관련 변수에서는 일하지 않는

집단이 일하지 않는 집단에 비해 가구 총자산만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관련 변수는 모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부채에 관련된 변수도 모두 집단 간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한편, 노후정책 신뢰도의 경우, 국민연금제도와 기초노령연금제도에 대한 신뢰도에서만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신뢰도는 일하는 집단에서 높았으며, 기초노령연금제도에 대한 신뢰도는 일하지 않는 집단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3) 교육비 부담에 따른 베이비부머의 가계경제구조 비교

베이비부머 세대를 교육비 부담이 있는 베이비부머 집단과 교육비 부담이 없는 베이비부머 집단으로 구분하여 가계경제구조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소득관련 변수를 비교하여 보면, 교육비 부담이 있는 집단의 가구총소득은 교육비 부담이 없는 집단에 비해 약 1.3배 높았으며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소득과 자영업소득도 교육비 부담이 있는 집단에서

각각 1.6배, 1.4배 더 높았다. 부업소득은 교육비 부담이 있는 집단이 2.5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 소비지출은 교육비 부담이 있는 베이비부머 집단이 243만원으로 나타나 131만원인 교육비 부담이 없는 베이비부머 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교육비 부담이 있는 베이비부머 집단에서의 월평균 공교육비 및 사교육비 지출은 각각 56만원, 27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때, 공교육비와 사교육비를 제외하고 소비지출에 대한 집단간 비교를 실시하였는데, 식비, 외식비, 주거비, 피복비 지출에서 모두 교육비 부담이 있는 집단에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건의료비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저축 및 자산을 살펴보면, 월평균 저축액은 교육비 부담이 있는 집단에서 45만원 수준으로 나타나 교육비 부담이 없는 집단의 36만원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관련 변수는 부동산 전망을 제외하고 모든 변수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가구 총자산은 교육비 부담이 있는 집단이 1.7배 높은 수준이었으며, 현금예금액, 저축성 예금, 주식투자신탁액, 자가주택 가격에서 모두 교육비 부담이 있는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높았다.

부채의 경우에도 교육비 지출이 있는 집단에서 가구 총부채가 1.8배 높게 나타났으며, 금융기관 대출 규모도 높았다. 다만, 개인적으로 빌린 돈은 두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노후정책 신뢰도는 국민연금제도 신뢰도만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었으며, 교육비 지출이 있는 집단에서 높게 나타났다.

### 3. 베이비부머 세대의 경제적 만족도에 대한 독립변수의 효과

베이비부머 세대의 경제적 만족도에 대한 독립변수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베이비부머 세

대와 이전세대, 일하는 베이비부머와 일하지 않는 베이비부머, 교육비 부담이 있는 베이비부머와 교육비 부담이 없는 베이비부머 집단으로 나누어 실시한 중다회귀분석의 결과는 각각 다음 <표 4>, <표 5>, <표 6>과 같다.

#### 1) 베이비부머 세대와 베이비부머 이전 세대의 경제적 만족도

베이비부머 세대와 베이비부머 이전 세대의 가계경제구조가 경제적 만족도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회귀분석 결과는 다음 <표 4>와 같다. 회귀분석에서 수정결정계수(Adjusted R<sup>2</sup>)의 값은 베이비부머 세대 모델(n= 1,289)에서 .293, 베이비부머 이전세대 모델(n=3,582)에서 .353으로 나타났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경제적 만족도에 대한 독립변수의 효과를 살펴보면, 가계경제구조 관련 변수에서 가구 총소득, 식비, 저축, 현금예금 보유, 가구 총자산, 자가주택 소유, 부동산 전망, 금융기관 부채, 가구 총부채, 국민연금제도 신뢰도의 10개 변수가 유의하였다. 한편, 베이비부머 이전세대의 경우 식비, 외식비, 주거비, 피복비, 저축, 현금예금 보유, 가구 총자산, 자가주택 소유, 거주외 부동산 소유, 부동산 전망, 금융기관 부채, 개인적 빌린 돈 유, 가구 총부채, 국민연금제도 신뢰도, 기초노령연금제도 신뢰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신뢰도의 17개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베이비부머 세대는 베이비부머 이전세대와 달리, 가구 총소득이 경제적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인 것으로 나타났고, 베이비부머 이전세대의 경제적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 가운데, 외식비, 저축성 보험 가입, 거주 외 부동산 소유, 기초노령연금제도 신뢰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신뢰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베이비부머 이전세대

〈표 4〉 베이비부머 세대와 이전세대의 경제적 만족도에 대한 경제적 자원의 효과

변수	모델 I-1		모델 I-2		
	베이비부머 세대		베이비부머 이전세대		
	B	S.E	B	S.E	
<b>소득</b>					
가구총소득(만원/년)	0.001 **	0.000	-1.769E-5	0.000	
근로 및 사업소득 유	-0.232	1.111	0.410	0.788	
<b>소비지출(만원/월)</b>					
식비	0.074 **	0.022	0.083 ***	0.018	
외식비	0.091	0.051	0.114 *	0.054	
공교육비	0.010	0.011	-0.023	0.017	
사교육비	-0.007	0.019	-0.060	0.028	
주거비	0.019	0.041	0.145 ***	0.037	
보건의료비	-0.019	0.043	-0.017	0.023	
피복비	-0.018	0.048	0.185 **	0.060	
<b>저축 및 자산</b>					
저축(만원)	0.024 **	0.007	0.026 **	0.010	
현금·예금 보유	4.958 ***	1.071	6.450 ***	0.653	
저축성 예금 보유	1.526	1.571	0.675	1.405	
주식·투자신탁 보유	2.039	2.331	4.231	3.318	
저축성보험 가입	1.314	1.353	4.515 **	1.572	
가구원 총자산	8.575E-5 ***	0.000	0.000 ***	0.000	
자기주택 소유	5.932 ***	1.263	9.883 ***	0.843	
거주 외 부동산 소유	2.302	1.427	6.093 ***	0.900	
부동산 전망	0.087 **	0.027	0.069 ***	0.017	
<b>부채</b>					
금융기관 부채 유	-7.198 ***	1.728	-8.578 ***	1.454	
개인적 빌린 돈 유	-2.855	3.273	-7.593 ***	1.932	
가구 총부채(월)	-1.815 **	0.685	-1.309 **	0.467	
<b>노후정책 신뢰도</b>					
국민연금제도 신뢰도	0.118 ***	0.029	0.117 ***	0.016	
기초노령연금제도 신뢰도	-0.026	0.029	-0.035 *	0.017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신뢰도	0.005	0.027	0.048 **	0.016	
<b>사회인구학적 배경</b>					
성별	0.005	1.290	0.606	0.780	
연령	0.184	0.258	-0.103 *	0.043	
혼인 중	3.663 *	1.645	1.413	0.721	
교육수준(기준= 대졸이상)					
중졸이하	-2.387	1.769	-4.496 **	1.468	
고졸	1.613	1.516	-0.288	1.503	
우울증	-7.169 **	2.365	-10.490 ***	1.056	
지역(기준=중소도시)					
대도시	-0.335	1.079	-2.168 **	0.735	
읍면	0.812	1.530	-0.838	0.863	
상수	17.265	13.296	31.067 ***	3.800	
Adjusted R <sup>2</sup>	0.293		0.353		
F	17.718 ***		62.070 ***		
N	1,289		3,582		

\*\*\* p < 0.001, \*\* p < 0.01, \* p < 0.05



의 경제적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노후정책과 관련하여 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신뢰는 경제적 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기초노령연금제도에 대한 신뢰는 부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경제적 만족도에 대한 사회인구학적 변수의 효과를 살펴보면, 베이비부머 세대에서는 혼인상태와 우울증의 두 변수가 경제적 만족도에 각각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와의 혼인상태를 유지하는 베이비부머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경제적 만족도가 약 4점 높게 나타났으며 우울증이 있는 베이비부머의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경제적 만족도가 약 7점 정도 낮았다. 반면, 베이비부머 이전세대에서는 연령, 교육수준, 지역이 유의한 영향을 주는 변수로 나타났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경제적 만족도가 낮았으며, 대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중소도시에 비해 경제적 만족도가 낮았다. 우울증이 있는 베이비부머 이전세대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경제적 만족도가 약 11점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2) 일하는 베이비부머와 일하지 않는 베이비부머의 경제적 만족도

일하는 베이비부머 세대와 일하지 않는 베이비부머의 가계경제구조가 경제적 만족도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회귀분석 결과는 다음 <표 5>와 같다. 이와 같은 회귀분석에서 수정결정계수(Adjusted  $R^2$ )의 값은 일하는 베이비부머 세대 모델( $n=743$ )에서 .298, 일하지 않는 베이비부머 모델( $n=545$ )에서 .306으로 나타났다.

이제 두 집단의 경제적 만족도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에서 나타난 독립변수의 효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일하는 베이비부머 집단에서 경제적 만족도를 결정하는 데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가구 총소득, 식비, 저축, 현금예금 보유,

가구 총자산, 자가주택 소유, 부동산 전망, 금융기관 부채, 가구 총부채, 국민연금제도로서 10개 변수가 유의하였다. 경제적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앞서 살펴본 전체 베이비부머 세대를 대상으로 한 회귀분석 모델의 결과와도 정확히 일치한다. 반면, 일하지 않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경우 가구 총소득, 현금예금 보유, 가구 총자산, 자가주택 소유, 금융기관 부채 유, 국민연금제도 신뢰도의 6개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일하는 베이비부머의 경제적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 식비, 저축, 부동산 전망, 가구 총부채의 4개 변수가 일하지 않는 베이비부머 집단에서는 경제적 만족도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를 미치지 않았다.

한편, 사회경제적 배경 변수가 경제적 만족도에 미치는 독립적 영향을 살펴보면, 일하는 베이비부머 집단에서는 우울증만이 유일하게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일하지 않는 베이비부머 집단에서는 성별, 연령, 혼인상태가 유의한 영향을 주는 변수로 나타났다. 즉, 일하지 않는 베이비부머 가운데 남성은 여성에 비해 경제적 만족도가 약 8점 정도 유의하게 낮았으며, 연령이 1세 높아질 때 경제적 만족도가 약 1점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배우자와의 혼인상태를 유지하는 있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경제적 만족도가 약 7점 높았다.

## 3) 교육비 부담에 따른 베이비부머의 경제적 만족도

교육비 부담이 있는 베이비부머 세대와 그렇지 않은 베이비부머의 가계경제구조가 경제적 만족도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회귀분석 결과는 다음 <표 6>과 같다. 각 모델의 수정결정계수(Adjusted  $R^2$ )를 보면, 교육비 부담이 있는 베이비부머 모델( $n=838$ )은 .256, 교육비 부담이 없는 베이비부머 모델( $n=449$ )은 .351로 나타났다.

〈표 5〉 일하는 베이비부머와 일하지 않는 베이비부머의 경제적 만족도에 대한 회귀분석결과

변수	모델 II-1		모델 II-1	
	일하는 베이비부머		일하지 않는 베이비부머	
	B	S.E	B	S.E
<b>소득</b>				
가구총소득(만원/년)	0.001 *	0.000	0.001 *	0.000
<b>소비지출(만원/월)</b>				
식비	0.126 ***	0.029	-0.003	0.035
외식비	0.025	0.065	0.163	0.085
공교육비	0.012	0.014	-0.004	0.019
사교육비	-0.004	0.024	-0.016	0.033
주거비	0.103	0.059	-0.032	0.059
보건의료비	-0.015	0.054	-0.037	0.074
피복비	-0.059	0.074	-0.026	0.066
<b>저축 및 자산</b>				
저축(만원/월)	0.041 ***	0.011	0.012	0.010
현금 및 예금 보유	4.653 **	1.428	4.952 **	1.645
저축성 예금 보유	2.557	2.022	0.239	2.528
주식 및 투자신탁 보유	0.563	3.280	3.568	3.429
저축성보험 가입	2.345	1.695	-0.772	2.304
가구 총자산	8.088E-5 **	0.000	0.000 ***	0.000
자가주택 소유	6.426 ***	1.684	4.488 *	1.994
거주 외 부동산 소유	1.299	1.845	3.794	2.295
부동산 전망	0.090 **	0.034	0.072	0.045
<b>부채</b>				
금융기관 부채 유	-5.814 **	2.072	-7.453 *	3.248
개인적 빌린 돈 있음	-5.455	4.291	1.769	5.339
가구 총부채	-4.734 ***	1.124	-0.737	0.903
<b>노후정책 신뢰도</b>				
국민연금제도 신뢰도	0.118 **	0.038	0.115 *	0.047
기초노령연금제도 신뢰도	-0.030	0.038	-0.004	0.048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신뢰도	0.003	0.035	0.014	0.043
<b>사회인구학적 배경</b>				
성별	1.246	1.434	-7.701 *	3.515
연령	-0.400	0.349	0.914 *	0.383
혼인 중	1.835	2.016	6.486 *	2.938
교육수준(기준= 대졸이상)				
중졸이하	-0.948	2.227	-4.328	3.033
고졸	0.695	1.902	2.036	2.670
우울증	-7.881 *	3.610	-5.462	3.198
거주지역(기준=중소도시)				
대도시	-0.899	1.433	-0.082	1.670
읍면	1.237	1.974	0.543	2.457
상수	44.124 *	17.840	-17.329	20.015
Adjusted R <sup>2</sup>	0.298		0.306	
F	11.154 ***		8.741 ***	
N	743		545	

\*\*\* p < 0.001, \*\* p<0.01, \* p<0.05

교육비 부담이 있는 베이비부머 집단에서 경제적 만족도를 결정하는 데 유의한 변수는 총 9개 변수 즉, 식비, 외식비, 저축, 현금예금 보유, 가구 총자산, 자가주택 소유, 부동산 전망, 금융기관 부채, 가구 총부채, 국민연금제도 신뢰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살펴본 베이비부머 세대 전체를 대상으로 한 회귀모델과 비교할 때 가구총소득을 제외한 모든 변수의 효과의 유의성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한편, 교육비 부담이 없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경우 가구 총소득, 저축, 현금예금 보유, 가구 총자산, 자가주택 소유, 금융기관 부채 유, 가구 총부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신뢰도의 8개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교육비 부담이 없는 베이비부머 집단의 경제적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 식비, 외식비, 부동산 전망, 국민연금제도 신뢰도가 교육비 부담이 있는 베이비부머 집단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를 나타내지 않았다. 한편, 교육비 부담이 없는 베이비부머 세대에서 경제적 만족도에 유의한 효과를 미치는 가구 총소득, 가구 총부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신뢰도는 교육비 부담이 있는 베이비부머 세대에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사회인구학적 배경 변수의 효과를 비교하면, 교육비 부담이 있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경우 유의한 변수가 없었으며, 교육비 부담이 없는 베이비부머 집단에서는 우울증이 유일하게 유의한 영향을 주는 변수로 나타났다.

#### 4. 베이비부머의 경제적 자원 배분 의향에 대한 집단간 차이 분석

<연구문제 3>과 관련하여 베이비부머의 경제적 자원 배분 의향의 집단별 차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t-test를 실시한 결과는 다음 <표 7>과 같다. 이는 앞서 연구방법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조사

대상자로 하여금 일천만원이 주어졌음을 가정하고, 이를 각각 저축투자, 빚 갚음, 상속기부, 여가 이외의 소비지출, 여가관련 소비지출의 다섯 가지 영역에 배분하도록 하여 그 응답결과를 분석한 결과이다.

##### 1) 베이비부머 세대와 베이비부머 이전세대의 경제적 자원 배분 의향

베이비부머 세대와 베이비부머 이전세대의 경제적 자원 배분 의향에는 뚜렷한 차이가 나타났다. 우선 자원배분영역의 우선순위를 살펴보면, 베이비부머 세대는 저축·투자, 빚 상환, 여가소비, 여가이외 소비, 상속기부 순으로 자원을 배분할 것으로 선호하였으나, 베이비부머 이전세대는 저축투자, 여가소비, 빚 상환, 상속기부, 여가이외 소비 순으로 선호하였다. 두 집단 모두 공통적으로 저축투자를 가장 선호하였으나 다른 배분 영역에서는 차이가 나타났다. 다음으로 자원 배분의 규모에 있어서도 베이비부머와 이전세대는 여가 소비 영역을 제외한 다른 모든 영역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인 자원배분 영역에서 베이비부머 세대가 더 높은 배분 비율을 보인 영역은 빚 상환, 여가 이외 소비의 두 영역이었으며, 저축투자, 상속기부의 두 영역은 베이비부머 이전세대가 높은 배분 의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 소비 영역은 베이비부머 세대가 약간 높은 수준이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 2) 일하는 베이비부머 세대와 일하지 않는 베이비부머의 경제적 자원 배분 의향

베이비부머 세대 내부에서 일하는 집단과 일하지 않는 집단으로 나누어 경제적 자원 배분 의향을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자원배분

(표 6) 교육비 부담에 따른 베이비부머 집단별 경제적 만족도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변수	모델 III-1		모델 III-2	
	교육비부담이 있는 베이비부머		교육비 부담이 없는 베이비부머	
	B	S.E	B	S.E
<b>소득</b>				
가구 총소득(만원/년)	0.000	0.000	0.001 **	0.000
소비지출(만원/월)				
식비	0.072 **	0.026	0.069	0.042
외식비	0.140 *	0.059	0.038	0.106
공교육비	0.014	0.013		
사교육비	-0.002	0.021		
주거비	0.034	0.047	-0.070	0.085
보건의료비	-0.051	0.049	0.092	0.092
피복비	-0.040	0.051	0.139	0.140
<b>저축 및 자산</b>				
저축(만원/월)	0.022 *	0.009	0.031 *	0.013
현금 및 예금 보유	3.791 **	1.309	6.675 ***	1.876
저축성 예금 보유	1.719	1.922	-0.478	2.751
주식 및 투자신탁 보유	2.375	2.566	6.297	5.747
저축성보험 가입	2.926	1.595	-2.139	2.587
가구 총자산	0.000 ***	0.000	0.000 ***	0.000
자가주택 소유	4.867 **	1.613	6.911 **	2.138
거주 외 부동산 소유	2.746	1.643	0.321	2.914
부동산 전망	0.105 **	0.033	0.036	0.048
<b>부채</b>				
금융기관 부채 있음	-7.162 ***	1.966	-9.684 **	3.678
개인적 빌린 돈 있음	-4.800	4.179	0.224	5.272
가구원 총부채	-0.961	0.727	-6.776 **	1.960
<b>노후정책 신뢰도</b>				
국민연금제도 신뢰도	0.175 ***	0.038	0.024	0.048
기초노령연금제도 신뢰도	-0.025	0.036	-0.049	0.05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신뢰도	-0.047	0.033	0.118 *	0.050
<b>사회인구학적 배경</b>				
성별	1.134	1.535	-3.896	2.564
연령	-0.034	0.337	0.062	0.437
배우자 있음	3.131	2.547	2.924	2.294
교육수준(기준= 대졸이상)				
중졸이하	-0.332	2.131	-5.030	3.551
고졸	2.314	1.688	-1.559	3.544
우울중	-4.439	3.373	-9.059 **	3.450
거주지역(기준=중소도시)				
대도시	1.112	1.310	-3.303	1.918
읍면	1.689	1.982	-0.956	2.470
상수	27.087	17.245	28.120	22.422
Adjusted R <sup>2</sup>	0.256		0.351	
F	10.004 ***		9.112 ***	
N	838		449	

\*\*\* p < 0.001, \*\* p<0.01, \* p<0.05

영역의 우선순위를 살펴보면, 두 집단의 자원배분 우선순위는 저축투자, 빚 상환, 여가 소비, 여가이외 소비, 상속기부 순으로 나타나 앞서 살펴본 전체 베이비부머 세대와 동일하였다. 다만, 자원 배분의 규모에 있어서의 유의한 차이는 일하는 베이비부머에 비해 일하지 않는 베이비부머 집단의 여가 소비에 대한 배분 의향이 30만원 정도 높았다. 일하는 베이비부머 집단이 저축투자, 빚 상환, 여가이외 소비 영역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은 자원 배분 의향을 나타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 3) 교육비 부담에 따른 베이비부머의 경제적 자원 배분 의향

베이비부머 세대를 교육비 부담 유무에 따라 두 집단으로 구분한 후 경제적 자원 배분 의향을 비교한 결과를 통해 우선 자원배분영역의 우선순위를 살펴보면, 두 집단 모두 저축투자, 빚 상환, 여가 소비, 여가이외 소비, 상속기부 순으로 나타나 앞서 살펴본 전체 베이비부머 세대와 동일하였다. 다만, 자원 배분의 규모에 있어서는 교육비 부담이 없는 베이비부머가 교육비 부담이 있는 베이비부머 집단에 비해 저축소비에 대한 배분 의향이 76만원 높게 나타났다. 교육비 부담이 있는 베이비부머 집단이 빚 상환, 상속배분, 여

〈표 7〉 경제적 자원(현금 일천만원)의 배분 의향에 대한 집단별 비교 결과

	M(SD)	베이비부머 세대	베이비부머 이전세대	t값	일하는 베이비부머	일하지 않는 베이비부머	t값	교육비 부담이 있는 베이비부머	교육비 부담이 없는 베이비부머	t값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저축·투자	M(SD)	519.49 (451.097)	596.76 (441.824)	-6.829***	524.25 (453.020)	511.21 (447.920)	0.623	495.48 (451.849)	571.36 (444.784)	-2.949*
	비사용 (빈도, %)	741(37.1)	1,972(29.5)		472(37.2)	269(36.8)		341(39.5)	149(31.6)	
빚 상환	M(SD)	193.24 (381.701)	112.91 (303.694)	8.629***	196.18 (385.313)	188.11 (375.540)	0.455	203.77 (390.134)	163.81 (354.876)	1.898
	비사용 (빈도, %)	1,539(77.0)	5,719(85.5)		978(77.0)	561(76.8)		658(76.2)	372(78.8)	
상속·기부	M(SD)	46.5 (166.017)	96.65 (247.717)	-10.466***	42.05 (162.124)	54.25 (172.419)	-1.557	49.13 (183.283)	44.92 (143.121)	0.433
	비사용 (빈도, %)	1,760(88.0)	5,432(81.2)		1,131(89.1)	629(86.2)		769(89.1)	409(86.7)	
여가이외 소비	M(SD)	94.95 (269.418)	49.4 (192.325)	7.043***	102.76 (282.146)	81.37 (245.303)	1.775	90.85 (262.854)	90.89 (266.179)	-0.003
	비사용 (빈도, %)	1,710(85.5)	6,077(90.9)		1,082(85.2)	628(86.0)		740(85.7)	350(74.2)	
여가 관련 소비	M(SD)	145.83 (292.282)	144.27 (292.810)	0.208	134.76 (280.896)	165.07 (310.359)	-2.175*	160.78 (308.512)	129.03 (268.962)	1.956
	비사용 (빈도, %)	1,467(73.4)	4,868(72.8)		953(75.0)	514(70.4)		622(72.1)	407(86.2)	
	N	2,000	6,688		1,270	730		863	472	

\*\*\* p < 0.001, \*\* p<0.01, \* p<0.05

가 소비 영역에서 더 높은 배분 의향을 나타냈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 V. 요약 및 결론

베이비부머 세대의 경제적 자원관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급속한 고령화와 조기 은퇴의 확산에 따른 가계 및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예측하고 그 예방책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적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제2차 고령화연구패널자료를 활용한 경험적 연구를 통해 베이비부머 세대의 가계경제구조를 베이비부머 이전세대와 비교하고, 베이비부머 세대와 관련된 증대한 두 가지 이슈, ‘일’과 ‘자녀교육’을 중심으로 베이비부머 내부의 이질적 요소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베이비부머 세대는 이전세대와는 구별되는 가계경제구조와 경제적 만족도 결정요인, 경제적 자원배분 의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베이비부머 이전세대와 비해 가구소득과 소비지출, 저축 모두 약 2배 수준으로 유의하게 높았으나, 베이비부머의 가구 총자산은 이전세대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가구 총자산의 규모에서는 베이비부머와 이전세대 간의 유의한 차이가 보이지 않았으나, 부동산 자산의 경우 베이비부머 이전세대가 유의하게 높았다. 이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경우 여전히 전체 자산에서 차지하는 부동산 자산의 비율이 높기는 하지만 이전세대와 비해서는 낮은 것으로 나타난 한준(2010)의 결과와 유사한 맥락으로 이해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베이비부머 세대에 대한 노후설계 서비스의 질적 수준에 따라 베이비부머가 충분히 다양한 금융자산의 보유를 통해 자산의 ‘유동성’ 확보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하겠다. 반면, 베이비부머는 그들의 이

전세대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가구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베이비부머 세대는 이전 세대에 비해 소득은 높으나 지출규모 역시 크고, 자산규모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으나 부채규모는 더 큰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한편, 노후보장과 관련된 국가정책에 대한 베이비부머 세대의 신뢰도는 이전세대와 비교 강한 편인데, 특히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신뢰도는 이전세대와 비교 유의하게 높았다. 또한 이들 베이비부머 세대의 경제적 만족도를 결정하는 회귀분석 결과 가계의 경제적 자원 관련 변수의 영향력을 보면, 베이비부머 이전세대와 달리 가구 총소득이 유의하였다. 소비지출에서 베이비부머 세대는 식비만이 경제적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지출항목인 반면, 베이비부머 이전세대의 경우 식비는 물론 외식비, 주거비, 피복비도 유의한 지출항목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만족도를 결정하는 노후정책 신뢰도 변수에서 베이비부머의 경우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신뢰만이 유의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전세대의 경우 국민연금제도는 물론 기초노령연금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모두 경제적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베이비부머 세대는 이전세대와 다른 자원배분 의향을 지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저축투자, 상속기부 의향은 낮았으나 빚 상환, 소비 등에서는 모두 높은 배분 의향을 보였으며, 특히 이를 통해 향후 상속 및 기부, 노후 소비에 대한 세대별 경향이 다르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음을 예측할 수 있다.

둘째, 일하는 베이비부머와 일하지 않는 베이비부머의 가계경제구조와 경제적 만족도, 경제적 자원배분 의향에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우선 일하는 집단은 가구총소득에서 연 평균 약 500만원이 더 많았으며, 소비지출에서는 사교육비 지출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가구 총자산의 규모는 오히려 일하지 않는 집단이 3,784만원 더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금융자산 및 부동산

자산 규모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보이지 않았다. 노후정책 신뢰도에서 국민연금제도는 일하는 베이비부머 집단이, 기초노령연금제도는 일하지 않는 베이비부머 집단이 더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일하지 않는 집단에서 가구 총자산이 더 높고 일반적으로 고령층에서 인식이 더 높은 기초노령연금제도에 대한 신뢰도가 높게 나타난 것은 일하지 않는 베이비부머 집단에 은퇴가 시작된 ‘전기 베이비부머’ 및 여성 베이비부머가 다수 포함되었기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경제적 만족도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를 보면 일하는 베이비부머와 일하지 않는 베이비부머의 경우 실제로 성별, 연령, 혼인상태 등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일하지 않는 베이비부머의 경제적 만족도에는 여러 사회인구학적 변수의 효과가 중요하게 작용하는데, 여성이 남성에 비해, 연령이 높을수록, 혼인상태를 유지하여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경제적 만족도가 유의하게 높았다. 특히, 성차의 효과에 주목하여 보면, 여성 베이비부머의 특성을 남성 베이비부머의 특성과 비교하여 분석한 김영란(2011)의 연구에서 고학력이면서 혼인 중에 있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과 상용직 근로 비율이 모두 낮아 가계의 주된 생계부양자로서의 역할을 남성에게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다만, 저소득가계 또는 사별, 이혼 등으로 홀로된 여성 가구의 경우 일은 가족을 부양하는 생계수단이 되며(김영란, 2011), 최근 50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증가도 베이비부머 가계의 특징적 현상으로 주목되고 있음(중앙일보, 2011. 10. 26)도 간과할 수 없다. 한편, 일하는 베이비부머 집단의 경우 이러한 변수는 경제적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단지 우울증만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일하는 베이비부머의 경우 일하지 않는 집단에 비해 식비 지출, 저축액 규모, 부동산 전망, 가구 총부채 등의 변수가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이들 변수와 경제적 만족도와의 관계의 방향은 모두 일치했다. 다른 변수를 통제할 경우 경제적 만족도에 대한 기초노령연금제도의 독립적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일하는 베이비부머와 일하지 않는 베이비부머의 경제적 자원배분 의향을 비교하면, 자원배분 우선순위는 유사하나 단지 여가소비 영역에서만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일하지 않는 베이비부머 집단이 상대적으로 높은 여가수요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교육비 부담을 기준으로 교육비 부담이 있는 베이비부머와 그렇지 않은 베이비부머집단을 비교한 결과, 자녀교육비에 대한 부담은 베이비부머 세대 내의 가계경제구조와 경제적 만족도, 경제적 자원 배분 의향의 차이를 설명하는 기준이 됨을 알 수 있었다. 교육비 부담이 있는 집단의 가구 총소득이 유의하게 높았으며, 임금소득, 자영업소득, 부업소득에서도 각각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경제활동을 통한 소득 수준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교육비 부담이 있는 집단은 월 56만원의 공교육비와 월 27만원의 사교육비를 합하여 총 월 83만원의 지출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육비 부담이 없는 집단에 비해 식비, 외식비, 피복비와 주거비 지출도 유의하게 높아 총 소비지출에서는 111만원의 차이가 있었다. 저축액, 가구총자산, 금융자산 및 부동산 자산도 모두 교육비 부담이 있는 집단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집단 간 비교결과를 보면 교육비 부담이 있는 베이비부머 집단에서 교육비 지출로 인해 지금 현재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기 보다, 교육비 지출의 여력이 상대적으로 부담이 되지 않는 집단에서 자녀에 대한 교육비 지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도 해석할 여지가 있다. 경제적 만족도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에서는 교육비 부담이 있는 집단에서는 가구 총자산은 유의하나 가구 총소득과 가구 총부채는 유의하지 않았으며, 교육비 부담이 없는 집단에서는

가구 총소득, 가구 총자산, 가구 총부채가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데에서도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이며, 자원배분 의향에서 교육비 부담이 없는 집단에서 저축투자 의향이 높은 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베이비부머와 베이비부머 이전세대의 가계경제구조의 현황을 비교한 결과 베이비부머는 노인 세대와 뚜렷한 차이를 가지는 가계경제구조를 지니며, 베이비부머 세대 내부에서도 이질적인 경제적 자원관리에 대한 차별적 수요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활용한다면, 최근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서 추진 중에 있는 노후설계 서비스의 이용자 만족도가 더욱 증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은 베이비부머 세대에게 은퇴를 더 이상 위협적으로 느끼지 않도록 하며, 나아가 노년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인식하지 않도록 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실상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에 따른 노후준비 수준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의 경우에도 사회적 우려가 큰 문제로 지적된 바 있다(Montalto, 2000). 이에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하여 몇 가지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우선, 베이비부머 세대는 이전의 고령층과는 다른 사회적 요구를 가진 집단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특히 이전세대에 비해 높은 교육수준을 지녔음을 고려할 때, 개별적인 노후준비의 잠재적 역량과 국가수준의 노후보장제도에 대한 요구도가 높은 집단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의 잠재적 노후설계 자립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노후준비프로그램과는 차별적인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의 제공이 요구된다 하겠다. 특히,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신뢰도는 상당한 수준의 경제적 만족도를 결정하는 변수로 나타났으므로, 정부는 향후 베이비부머 세대의 경제적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체감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다양한 노후소득보장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정책의 내용

을 충실히 보강할 뿐 아니라 국민의 정책 체감도를 제고하기 위해 개별 가계가 노후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정책의 내용을 적극적인 홍보하는데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둘째, 베이비부머 세대에 대해 중대한 과제가 되는 ‘일’과 ‘자녀교육’은 실제로 가계경제 및 경제적 만족도, 향후 자원배분에 대한 의향에 차이를 가져오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향후 베이비부머 집단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보다 베이비부머 세대 내부의 이질적 상황을 고려하는 것이 요구된다. 특히, 베이비부머의 사회인구학적 배경에 따른 차이를 고려하여 은퇴 후 일자리 창출은 준비되지 않은 퇴직을 하게 된 사례에 초점을 맞추어 시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높으며,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가족생활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의 병행을 통해 경제적 만족도에 미치는 상승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하지 않는 베이비부머 가운데 남성은 여성에 비해 동일한 조건 하에서라면 경제적 만족도가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나므로 은퇴로 인한 스트레스를 더욱 심각하게 경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들 남성의 은퇴적응 혹은 구직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때 앞서 논의한 여성 베이비부머 가계의 현실을 고려하여 양성평등한 관점에서 노후 소득보장체제와 은퇴 이후의 일자리 정책이 설계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바이다. 이는 남성의 소득이나 연금에 의존하는 여성의 노후 소득보장문제를 개선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일과 자녀교육에 대한 여건의 차이가 자원배분의 의향에도 영향을 미치는 바와 같이 일반적인 집단별 자원배분 의향을 고려하여 노후설계 서비스 프로그램에 반영할 수 있다. 개별 가계에 대한 맞춤형 지원에서는 가계의 특수한 요구를 반영하여야 하겠으나, 전반적인 프로그램의 방향성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베이비부머 세대 내에서도 나타나는 뚜렷한 차이를 토대로 하여 보



다 개별적인 맞춤형 설계가 가능한 노후설계프로그램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녀교육비 지출에 대한 수요가 높은 베이비부머 집단의 경우, 실제로 반드시 가계경제 구조가 열악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교육비 부담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이들이 스스로의 경제적 노후준비를 지연시킬 가능성은 여전히 높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소득보장정책과 더불어 교육정책 등 다양한 정책영역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와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우선 앞서 소개한 바와 같이 연구자료의 한계로 인해 모든 베이비부머 세대를 아우르지 못하며 1962년과 1963년생 집단에 대한 분석이 불가능하였다. 또한 베이비부머 세대 내부의 경험적 이질성을 고려하여 ‘전기 베이비부머(1955~59년 출생자)’와 ‘후기 베이비부머(1960~1963년 출생자)’로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한경혜 외, 2010)을 고려하면, 향후 제3차 고령화연구패널에서는 이들 후기 베이비부머세대에 대한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기 위한 보완이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이는 보다 역동적인 사회의 변화를 반영하여 베이비부머 세대의 다양한 경제적 복지에 대한 정책적 요구 및 노후설계 서비스 수요를 파악하는 데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제1차 및 제2차 고령화연구패널조사 자료만으로는 연령효과 이외에 코호트 효과를 분석하기에 미흡하다. 향후 격년으로 구축되는 패널 자료가 2010년 이후 제3차 패널조사를 통해 수집되어 베이비부머 세대에 대한 조사자료가 축적되면 한국의 베이비부머 세대가 그 이전세대에 비해 어떠한 차별적 수요를 가지는 인구집단인지를 규명하기 위한 코호트 효과를 연령효과로부터 분리할 수 있는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2010년 이후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가 본격적으로 시작됨을 고려할 때, 제3차 자료의 축적 이후 사회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베

이비부머 세대의 은퇴에 따른 결과를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연구가 가능하리라고 본다. 셋째, 향후 베이비부머 세대의 자원배분 의향에 대한 세분화된 분석 역시 중요한 별도의 연구과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축적된 제1차 및 제2차 고령화연구패널조사에서는 자원배분성향을 파악하기 위한 영역을 다섯 가지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는데, 이때 저축투자, 상속기부과 같이 이질적 속성을 지닌 동일영역에 포함되어 측정되어 저축 의향과 투자 의향, 자녀에 대한 재산상속 의향과 사회적 기부 의향을 세분화하여 비교하는 데 있어 자료 활용에 제한이 따른다. 이들 속성의 구분은 세대 간, 혹은 세대 내 요인에 의한 이질성 혹은 동질성을 파악하는 데 중요하므로 향후 자료수집 단계에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 【참 고 문 헌】

- 1) 강이주·김영신·허경옥(2006). 알기 쉬운 가계경제학. 서울: 신정.
- 2) 김영란(2011). 여성 베이비부머, 그들은 누구인가? 이슈브리프 봄호, 52-61.
- 3) 김지경(2010). 베이비붐 세대의 경제적 부담 부담. 한국노동연구원.
- 4) 대한민국정부(2011).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 본계획(2011-2015).
- 5) 백은영(2009). 라이프사이클에 따른 가계 재무 구조와 저축성향 분석. 소비자학연구, 20(2), 1-20.
- 6) 백은영(2011). 베이비부머의 은퇴 준비와 준비 유형 결정요인 분석. 사회보장연구, 27(2), 357-383.
- 7) 삼성경제연구소(2010). 베이비붐 세대 은퇴의 파급효과와 대응방안.
- 8) 여운경·김진호(2007). 한국가계의 은퇴자산 적정성 판단을 위한 시뮬레이션 분석. 금융연구, 21(3), 1-30.

- 9) 이수옥(2010). 베이비부머 가구의 소득변화와 주택시장. 한국주택학회·한국부동산분석학회 공동정책세미나 자료집.
- 10) 이철용·윤상하(2006).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주식 및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 LG경제연구소.
- 11) 정성호(2006). 중년의 사회학. 살림지식총서.
- 12) 정운영·한경미(2004). 가족생활주기와 가계의 비상자금 적절도에 관한 연구. 소비자학연구, 15(1), 23-37.
- 13) 중앙일보(2011. 10. 26). 은퇴 베이비부머의 아내, 청년 백수의 엄마 50대 이즘마 일터로 내몰리다.
- 14) 통계청(2005). 청년층·고령층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 15) 통계청(2006). 가계자산조사.
- 16) 통계청(2010. 4. 12). 사회조사를 통해 본 베이비붐 세대의 특징(보도자료).
- 17) 통계청(2010. 5. 10). 통계로 본 베이비붐 세대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보도자료).
- 18) 통계청(2010. 12. 30). 2010년 가계금융조사 결과(보도자료).
- 19) 통계청(2011). 2010년 생명표.
- 20) 한경혜·최현자·은기수·이정화·주소현·김주현(2010). 한국의 베이비부머 연구보고서.
- 21) 한국거래소(2009). KRX Market, 5.
- 22) 한국노동연구원(2009). 고령화연구패널조사(KLoSA) 2008년 제2차 기본조사 사용자안내서.
- 23)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0). 베이비부머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 24) 한준(2010). 베이비붐 세대의 경제적 자산과 사회적 자본. 한국노동연구원.
- 25) Bryant, W. K. (1990). The Economic Organization of the Household.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 26) Easterlin, R. A., Schaeffer, C. M., & MaCunovich, D. J. (1993). Will the baby boomers be less well off than their parents?: Income, wealth, and family circumstances over the life cycle in the United State.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19(3), 497-522.
- 27) Montalto, C.(2000). Retirement Savings of American Household: Asset Levels and Adequacy. Report to the Consumer Federation of America and DirectAdvice.com.
- 28) Weicher, J. C. (1999). Some income measurement issues and their policy implications.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89, 29-33.

- 투 고 일 : 2012년 1월 1일
- 심 사 일 : 2012년 1월 10일
- 심사완료일 : 2012년 1월 30일